보건사회연구 28(2), 2008, 103-134

보육 · 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현상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 중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인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며 특히 보육 · 교육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가구의 보육 · 교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부담 수준이 자녀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08년 3월 17일부터 28일 동안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5~39세 기혼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기술 분석 결과, 보육 · 교육비에 대해서 약 70~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 · 교육비가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비용으로 감소한다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보육비 44.1%, 유치원비 32.7%, 초등학교 교육비 25.8%, 중학교 교육비 19.8%, 고등학교 교육비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 · 교육비 수준에서 희망하는 비용 감소 비율은 전반적으로 약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분석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 · 교육비 수준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육비, 초등학교 교육비, 고등학교 교육비 절감은 여성들의 출산 의향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승산비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는바, 보육 · 교육비 절감의 효과는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보육 · 교육비 절감이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를 출산할 것으로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이 자녀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더 큰 유효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 보육 · 교육비 절감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주요용어 저출산, 보육비, 교육비, 출산의향

교신저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yjshin@kihasa.re.kr)

■ 투고일: 2008. 09. 29 ■ 수정일: 2008. 11. 10 ■ 게재확정일: 2008. 11. 27

I. 서론

과거 1960년대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에 인구대체수준인 2.1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1990년대 중반까지 1.5~1.7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기에 이르렀다. 1997년 외환위기를 직면하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으며 2005년에는 합계출산율의 최저 수준인 1.08을 기록하게 되었다. 2007년에 출산율은 1.26으로 상승하여 어느 정도 하락추세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선진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제까지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은 인구학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 경제적 및 문화적 원인에 의해 유발된다고 지적되고 있다(이삼식 외, 2005).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 중 특히 경제적인 이유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녀에게 지출하는 보육 · 교육비가 경제적인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장혜경 외, 2004). 실로 2004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77.2%가 교육비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대다수가 교육비로 인하여 부담을 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은 높은 자질의 우수한 노동력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바가 크며 이러한 이면에는 자녀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한 부모들의 교육열이 큰 몫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공교육의 기능은 저하되고 사교육에 높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육 인프라의 양적 그리고 질적인 불충분성으로 인하여 자녀 보육비에 대한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부모들이 자녀 보육 · 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지만 실증적으로 이러한 부담 수준이 실제적으로 자녀 출산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한 연구는 희박한 실정이다. 보육 ·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자녀 출산 의향이 낮아지면 결국 부모들이 출산을 기피하게 되며 이러한 출산 기피 현상이 바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게 된다. 본 고에서는 가구의 보육 · 교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부담 수준이 자녀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 현상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정부의 보육 및 교육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인 논의를 통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 본 뒤 국내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 결과를 검토한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연구 방법론을 설명한 후 자료 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동 연구에서는 전화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기술 분

석과 심층 분석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다. 셋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정책적인 제언을 제공한다.

II. 이론적 배경

보육 · 교육비 지출이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는 인적자본이론, 선별가설, 소비자 수요 이론, 자녀 수와 자녀 질의 모형에서 논의된 바 있다. 본 고에서는 동 연구의 가설 및 모형 설정을 위해 각 이론들이 제시하는 시사점을 살펴 보고 이제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 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란 물적자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간이 지닌 능력 및 지식, 기술, 경험, 건강 태도 등을 지칭한다. 이러한 인간의 지식과 기술 등은 주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비형식 혹은 형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형성될 뿐 만 아니라 노동 시장에서의 훈련, 경험 및 노동 유동을 통해서 개발된다(박미희, 여정성, 2000). 인적자본이론에서는 교육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행위로 보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인적자본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되기 때문에 노동 시장에서 받는 높은 소득은 인적자본의 생산성에 대한 당연한 댓가로 인식된다(Schultz, 1961).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개인의 임금, 미래 소득, 사회적 지위의 획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계는 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적 자원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교육은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주요 수단으로서 노동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게 되고 교육을 통해 높은 생산성을 습득하게 된 노동자들은 그 대가로서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소득을 받게 된다고 봄으로써 학력에 따른 소득격차가 사회적 정당성을 지닌 것이라고 간주한다(정영숙, 1996). 인적자본이론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미래의 잠재 소득을 증가시키므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수요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인적자본이론은 임금격차가 생산성 격차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으며, 교육이 인적자본을 형성하는데 부분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교육이 개인간의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적자본론의 대안적인 이론으로서 선별가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선별가설은 인적자본이론의 교육 · 생산성 · 소득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선별가설에 따르면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이유는 교육에 의해 개인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들이 교육을 노동자들이 가진 재능을 식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Layard and Psacharopoulos, 1974). 즉 선별가설에서는 대학이 단순히 인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곳이 아니라 대학 교육이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가려내는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 혹은 분류과정(sorting process)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Lang and David, 1986; Liu and Wong, 1982; Riley, 1979; Stiglitz 1975; Weiss 1995; Wolpin 1977). Arrow(1973)은 선별가설을 주도하였는데 개인의 생산 능력이 완전하게 교육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교육 이외에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고용주에게 있어서 교육은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Layard and Psacharopoulos, 1974). 즉, 자신의 능력과 생산성을 잘 알고 있는 개인과는 달리 고용주는 그것을 모르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통계적 정보에 기초하여 어떤 지표나 신호를 가진 사람이 대개 어느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조건부 기대치를 갖게 되며 이때 주로 학력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이정우, 1995). 이러한 선별 가설은 교육이 선별 기능을 하고 있는 이상 학력간 소득격차의 상당 부분은 교육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의 생산성 보다 과대 평가되고, 사람들은 선별가설의 관점에서 보다 많은 교육을 받고 명문대학에 가는 것이 채용, 결혼, 지위 상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되므로 교육에 대한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소비자 수요 이론을 적용한 경제학적 출산 행태 모형에서는 부모를 자녀의 가격과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소비자로 보고 있다. 자녀의 수에 대한 수요 함수는 예산제약하에서의 효용 극대화 과정을 거쳐 도출되며 자녀의 가격과 가계 소득의 함수로 나타난다. 자녀의 가격 변화가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소비자 이론에서의 가격 효과와 대체효과가 유사하며 가계 소득이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도 소득 효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모형하에서 자녀 수의 수요에 미치는 자녀의 가격 변화는 자녀 양육비의 변화, 자녀 양육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변화(부양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 양육비 지원 등) 등으로 볼 수 있다. 자녀 수는 자녀의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는 일반적인 수요 이론을 따른다.

한편, 소비자 수요 이론을 적용한 출산 행태 모형은 가장 기본적인 유형만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가설을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다양한 출산 행태를 설명하는 데는 역부족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기본적인 모형을 기초로 다양한 출산 행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경제학적 이론을 적용한 모형들이 뒤따라 제시되었다. 이러한 노력 중의 초기 형태로 부모가 자녀의 수에 대한 수요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질(quality)에 대해서도 수요를 갖고 있다는 것에 착안한 자녀 수와 질의 모델(quantity and quality model)이 있다. Becker의 출산 행태를 설명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논문들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이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 시작되었다. Becker(1960)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이 감소하는 현상을 자녀가 열등재라거나 자녀에 대한 지출 수준이 높은 고소득의 가정이 높은 자녀 가격에 직면하고 있어 출산률이 낮다는 설명에 동

의하지 않았다. Becker는 자녀는 정상재라는 전제 하에 자녀에 대한 수요가 자녀의 수로 대변되는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자녀 1인당 지출 비용과 같은 질적인 측면과 관련 있다고 봄으로써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실증 연구 결과들은 앞서 제시한 이론들의 내용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국내 연구 결과는 보육 · 교육비 부담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육 · 교육비 부담이 어떠한 매커니즘을 통해 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측면에서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용복과 이소희(2004)는 오늘날 자녀의 의미가 가계 생산 활동의 계승이라는 투자재의 개념이 아니라 애정의 대상이라는 소비재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투자재로서의 자녀를 중시하는 자영업 · 농가세대가 저하되고 영구 소비재로 자녀를 중시하는 고용자 세대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영구소비재로서 아동의 경제적인 가치가 오늘날에는 지배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 취업률의 상승 등이 영구 소비재로서 아동 가치의 상승을 가져와 가족은 많은 수의 자녀 보다는 적은 수의 자녀를 선택하고 있고 또한 한 자녀에 대한 질을 높이려는 행동을 취하게 되어 이것이 저출산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았다.

손승영(2005)은 가족가치관과 관련된 전통적 요인은 약화되고 있으나 자녀 양육의 경제적 · 정서적 부담, 가족에서의 성불평등, 자녀 교육 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한국 사회에 작용하는 경쟁심리와 과잉과시의 사회적 압력 등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우리사회에서도 자녀가 제공하는 물리적 · 심리적 혜택에 변화가 있어와 과거에 비해 자녀의 경제적 기여도는 낮아진 반면 자녀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게다가 유교적 규범마저 변화하고 있어 부모의 노후에 대한 자녀의 의무나 물질적 지원 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4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훗날 부모에게 제공할 물질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항목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4%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4.2%에 이르고 있다(장혜경 외, 2004).

손승영(2005)은 심층면접을 통하여 저출산의 원인으로 가장 자주 언급된 요인은 경제적인 이유이며 특히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용과 교육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높고 그것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으로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이유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자녀를 남들과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키우거나 남들보다 더 잘 키워야 한다는 사회 압력이 한국 부모들에게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압력이 가계 지출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 비용을 훨씬 높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영주(2005)는 엄청나게 비싼 주택가격과 함께 나날이 과열되는 교육열에 따른 자녀 양육에 대

한 부담이 커지면서 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결혼 후 이상적인 수 만큼 자녀를 낳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거 요구에 맞지 않게 엄청나게 비싼 주택가격 때문이라고 하였다.

차경욱(2004)은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비,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라고 지적하면서, 자녀 양육비와 사교육비만 절감되면 많은 가정에서 자녀 출산에 적극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취업주부들은 직접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자녀 한명에게 과도한 소비지출을 하고 있으며, 한 명의 자녀에게 과거 2~3명의 양육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양상이 확대된다면 단순히 양육비나 교육비 절감과 같은 경제적 보상으로는 저출산 현상의 지속화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녀에 대한 가치가 생산재에서 소비재로 변화함에 따라 부모들은 양적으로는 적은 수의 자녀와 질적으로는 우수한 자녀를 선호하게 되었다. 둘째, 질적으로 우수한 자녀를 선호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투자 비용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자녀 질에 대한 투자가 부모들로 하여금 점점 더 높은 액수의 보육 · 교육 비용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보상 심리, 학벌 주의 등이 자녀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결국 적은 수의 자녀를 선택하고 적은 수의 자녀를 낳은 부모들은 다시 자녀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순환적인 양상을 거듭하고 있다.

III. 연구 방법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5~39세 기혼 여성 1,500명으로 하였다. 연령대를 25~39세로 한정한 이유는 보육 ·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출산율이 높은 연령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인 혼인 상태 내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을 기혼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연령별 · 지역별 조사 대상 샘플 수는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나타난 비율에 따라 할당하였다. 조사 대상 샘플은 전국의 전화번호부 자료를 이용하여 계통추출법으로 추출하였다. 조사는 2008년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실시하였으며, 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화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보육 · 교육비 지출 수준이 출산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보육 · 교육비 지출 비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절감될 때 자녀 출산 의향이 어떠한지, 그리고 향후 지출할 보육 · 교육비용이 적정한 수준으로 절감될 때

여성들의 출산 의향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여기서 향후에 지출할 보육 · 교육비는 자녀의 현재 교육 단계로부터 두 단계 이상의 보육 혹은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았다. 즉,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교육비와 중학교 교육비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비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만을 대상으로도 수행하여 보육 · 교육비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출산 의향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해 보았다. 또한 자녀를 1명 가지고 있는 여성과 자녀를 2명 가지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도 분석을 수행하여 1자녀에서 2자녀로의 출산 의향과 2자녀에서 3자녀로의 출산 의향에 보육 · 교육비 절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파악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 분석 결과

가. 현재 자녀 출산 의향 및 기대 자녀수

전체 응답자의 약 2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7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은 소득 계층별로 별다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약간 낮은 출산 의향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 의향을 보였다. 한편, 지역별, 어머니의 취업여부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1].

자녀 출산 의향은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수,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없는 여성 중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은 약 4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비율은 9.2%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적어도 1명의 자녀는 반드시 낳으려는 경향이 강하며 2명의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못 미치는 여성들이 계획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여성은 희박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 의향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조사 대상 샘플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의 평균은 약 3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을 중심으로 응답자를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하였다. 전체 대상자 중 최저소득층 22.0%(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14.0%(201~290만원 이하), 중산층 27.8%(291~360만원 이하), 고소득층 16.2%(361~490만원), 최고소득층 20.0%(491만원 이상)으로 나누었다.

표 1. 자녀출산 의향(전체 여성)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주)	계
전 체		363 (24.2)	1,137 (75.8)	1,500 (100)
소득수준	최저소득층	77 (24.1)	243 (75.9)	320
	저소득층	57 (27.9)	147 (72.1)	204
	중산층	87 (21.5)	317 (78.5)	404
	고소득층	53 (22.6)	182 (77.4)	235
	최고소득층	79 (27.1)	212 (72.9)	291
지역	대도시	170 (24.9)	512 (75.1)	682
	중소도시	170 (23.5)	552 (76.5)	722
	농촌	23 (24.0)	73 (76.0)	96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 중	143 (24.4)	442 (75.6)	585
	비취업 중	220 (24.0)	695 (76.0)	915
어머니 학력	중졸	0 (0)	18 (100.0)	18
	고졸	111 (20.0)	445 (80.0)	556
	대졸	230 (26.6)	634 (73.4)	864
	대학원졸	22 (35.5)	40 (64.5)	62
양육 자녀수	없음	93 (89.4)	11 (10.6)	104
	1명	185 (43.5)	240 (56.5)	425
	2명	76 (9.2)	748 (90.8)	824
	3명 이상	9 (6.1)	138 (93.9)	147
어머니 연령	25~29세	144 (55.6)	115 (44.4)	259
	30~34세	158 (27.4)	419 (72.6)	577
	35~39세	61 (9.2)	603 (90.8)	664

주: "없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임.

현재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중 1명을 낳겠다고 응답한 여성이 전체의 7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명을 낳겠다고 응답한 여성은 21.8%, 3명 이상을 낳겠다고 응답한 여성은 4.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대 자녀수는 소득 수준, 지역, 어머니의 취업여부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대 자녀수는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수,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우, 약 40% 정도가 1명의 자녀를, 약 50% 정도가 2명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현재 기대자녀 수(출산 의향 있는 여성)

(단위: 명, %)

구 분		자녀수				계
		1명	2명	3명	4명 이상	
전 체		269 (74.1)	79(21.8)	13 (3.6)	2 (0.6)	363
소득수준	최저소득층	60 (77.9)	14 (18.2)	3 (3.9)	–	77
	저소득층	43 (75.4)	12 (21.1)	2 (3.5)	–	57
	중산층	59 (67.8)	22 (25.3)	5 (5.7)	1 (1.1)	87
	고소득층	36 (67.9)	15 (28.3)	1 (1.9)	1 (1.9)	53
	최고소득층	62 (78.5)	15 (19.0)	2 (2.5)	–	79
지역	대도시	119 (70.0)	44 (25.9)	6 (3.5)	1 (0.6)	170
	중소도시	132 (77.6)	32 (18.8)	5 (2.9)	1 (0.6)	170
	농촌	18 (78.3)	3 (13.0)	2 (8.7)	–	23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 중	105 (73.4)	34 (23.8)	3 (2.1)	1 (0.7)	143
	비취업 중	164 (74.5)	45 (20.5)	10 (4.5)	1 (0.5)	220
어머니 학력	고졸	89 (80.2)	15 (13.5)	6 (5.4)	1 (0.9)	111
	대졸	165 (71.7)	57 (24.8)	7 (3.0)	1 (0.4)	230
	대학원졸	15 (68.2)	7 (31.8)	–	–	22
양육 자녀수	없음	39 (41.9)	48 (51.6)	5 (5.4)	1 (1.1)	93
	1명	157 (84.9)	25 (13.5)	3 (1.6)	–	185
	2명	66 (86.8)	6 (7.9)	3 (3.9)	1 (1.3)	76
	3명 이상	7 (77.8)	–	2 (22.2)	–	9
어머니 연령	25~29세	93 (64.6)	45 (31.3)	6 (4.2)	–	144
	30~34세	122 (77.2)	28 (17.7)	7 (4.4)	1 (0.6)	158
	35~39세	54 (88.5)	6 (9.8)	–	1 (1.6)	61

나. 보육 · 교육비 지출 수준에 따른 출산 의향

보육 · 교육비를 전국 평균 비용보다 높게 지출하는 그룹과 전국 평균 비용보다 낮게 지출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출산 의향을 비교한 결과, 두 그룹 사이에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과 출산 의향이 없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와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2].

2) 본 원고의 지면상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여성과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여성에 대한 결과표는 기재하지 않았다. 동 결과표는 신윤정 외(200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육비 부담정도에 관한 연구" 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3. 보육 · 교육비 지출 수준에 따른 출산 의향(전체 여성)

(단위: 명, %)

구 분	지출수준	출산 의향			χ^2
		있다	없다	계	
보육비 지출	전국 평균 이하	27 (23.1)	90 (76.9)	117 (100)	0.231
	전국 평균 이상	72 (25.4)	212 (74.6)	284 (100)	
유치원비 지출	전국 평균 이하	7 (10.8)	58 (89.2)	65 (100)	0.881
	전국 평균 이상	49 (15.3)	272 (84.7)	321 (100)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전국 평균 이하	15 (9.3)	147 (90.7)	162 (100)	0.199
	전국 평균 이상	47 (8.2)	529 (91.8)	576 (100)	
중학교 교육비 지출	전국 평균 이하	2 (4.4)	43 (95.6)	45 (100)	0.006
	전국 평균 이상	5 (4.2)	115 (95.8)	120 (100)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전국 평균 이하	1 (6.7)	14 (93.3)	15 (100)	1.000
	전국 평균 이상	2 (6.5)	29 (93.5)	31 (100)	

†p<0.1, *p<0.05, **<0.01, ***<0.001

다. 보육 · 교육비 부담 수준에 따른 출산 의향

출산 의향은 현재 보육 · 교육비 부담 수준별로도 별다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를 1명 양육하고 있는 여성과 자녀를 2명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에서도 보육 · 교육비 부담 수준별로 자녀 출산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보육 · 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집단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집단과 비슷한 정도의 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는 역시 보육 · 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가정을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하여 적은 수의 자녀 출산을 유도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표 4. 보육 · 교육비 지출 부담에 따른 출산 의향(전체 여성)

(단위: 명, %)

구 분	지출수준	출산 의향			χ^2
		있다	없다	계	
보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67 (24.2)	210 (75.8)	277	0.701
	보통이다	24 (27.6)	63 (72.4)	87	
	부담스럽지 않다	8 (21.1)	30 (78.9)	38	
유치원비 지출	부담스럽다	42 (13.5)	268 (86.5)	310	1.390
	보통이다	9 (20.0)	36 (80.0)	45	
	부담스럽지 않다	5 (16.1)	26 (83.9)	31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49 (8.7)	513 (91.3)	562	0.815
	보통이다	11 (8.1)	125 (91.9)	136	
	부담스럽지 않다	2 (4.8)	40 (95.2)	42	

표 4. 계속 (단위: 명, %)

구 분	지출수준	출산 의향			χ^2
		있다	없다	계	
중학교 교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7 (5.2)	128 (94.8)	135	1.732
	보통이다	0 (0.0)	26 (100.0)	26	
	부담스럽지 않다	0 (0.0)	6 (100.0)	6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3 (7.1)	39 (92.9)	42	0.306
	보통이다	0 (0.0)	3 (100.0)	3	
	부담스럽지 않다	0 (0.0)	1 (100.0)	1	

†p<0.1, *p<0.05, **<0.01, ***<0.001

라. 보육 · 교육비 절감에 따른 출산 의향 변화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 · 교육비가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비용으로 감소한다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보육비 44.1%, 유치원비 32.7%, 초등학교 교육비 25.8%, 중학교 교육비 19.8%, 고등학교 교육비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교육 기관으로 갈수록 출산 의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상위 교육 기관으로 갈수록 교육비가 높아지기 때문일 수 도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위 교육기관에 대해 응답한 사람이 연령이 높고 자녀수가 1명 이상인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자녀 출산 의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도 판단된다. 이들이 희망하는 현재 보육 · 교육비 지출 수준에서의 감소 비율은 전반적으로 약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비용으로 감소하면 자녀를 낳겠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희망하는 비용 감소율은 적정비용으로 감소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여성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 지출하고 있는 보육 · 교육비가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수준으로 절감하면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약 15~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육비 28%, 유치원비 23.6%, 초등학교 교육비 19.3% 중학교 교육비 17.5%, 고등학교 교육비 23.3%). 이러한 비율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보육 · 교육비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을 파악한 비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보육 · 교육비 지출 절감 비율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비슷하게 약 50% 절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보육 · 교육비 지출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의향(전체여성) (단위: %, 명, 원)

구 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지출비용과 적정비용간의 차이 평균
보육비	있다	178 (44.1)	49.1	193,508
	없다	226 (55.9)	43.2	127,415
	계	404 (100)	46.0	165,697

표 5. 계속 (단위: %, 명, 원)

구 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지출비용과 적정비용간의 차이 평균
유치원비	있다	130 (32.7)	50.0	176,691
	없다	267 (67.2)	49.5	168,588
	계	397 (100)	49.7	171,380
초등학교 교육비	있다	191 (25.8)	49.3	176,276
	없다	549 (74.2)	42.5	160,058
	계	740 (100)	44.3	164,542
중학교 교육비	있다	33 (19.8)	46.8	257,969
	없다	134 (80.2)	41.1	189,412
	계	167 (100)	42.3	203,940
고등학교 교육비	있다	11 (23.9)	60.9	316,666
	없다	35 (76.1)	43.3	242,604
	계	46 (100)	47.5	260,238

표 6. 보육 · 교육비 지출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의향(출산의향 없는 여성) (단위: %, 명, 원)

구 분	적정비용 절감 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지출비용과 적정비용간의 차이 평균
보육비 지출	있다	84 (28.2)	54.9	190,367
	없다	214 (71.8)	43.4	118,287
	계	298 (100)	47.0	140,021
유치원비 지출	있다	78 (23.6)	51.1	178,040
	없다	252 (76.4)	49.9	169,735
	계	330 (100)	50.2	171,791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있다	131 (19.3)	51.6	183,927
	없다	547 (80.7)	42.5	160,431
	계	678 (100)	44.4	165,294
중학교 교육비 지출	있다	28 (17.5)	47.9	257,593
	없다	132 (82.5)	41.1	189,658
	계	160 (100)	42.4	202,396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있다	10 (23.3)	62.9	318,519
	없다	33 (76.7)	44.2	242,111
	계	43 (100)	48.6	259,744

마. 향후 보육 · 교육비 지출 절감에 따른 출산 의향

향후 지출할 보육 · 교육비가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비용으로 감소할 때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보육비 지출 여성과 유치원비 지출 여성의 57.4%,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의

51.2%를 보였다. 중학교 교육비와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각각 37.2%와 29.1%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23.9%가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보육 ·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람이 응답한 비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보육 ·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여성보다 보육 · 교육비 절감에 따른 출산 의향이 높은 이유는 아직 해당 교육 단계에 대한 지출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실제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사람보다 적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이 희망하는 전국 평균 비용에서의 보육 · 교육비 감소비율은 30~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희망 감소율은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자녀를 출산 할 것이라고 응답한 여성과 여전히 자녀를 출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성 사이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향후 지출할 보육 · 교육비가 적정한 수준으로 절감할 때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 보다 낮았다. 이들이 응답한 향후 보육 · 교육비 희망 감소율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비슷하여 약 30~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보육 · 교육비 향후 예상 비용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전체 여성) (단위: 명, %)

구 분	향후 적정비용 절감 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보육비	있다	272 (57.4)	37.8
	없다	202 (42.6)	35.2
	계	474 (100)	36.7
유치원비	있다	272 (57.4)	36.5
	없다	202 (42.6)	31.2
	계	474 (100)	34.2
초등학교 교육비	있다	527 (51.2)	29.4
	없다	503 (48.8)	30.4
	계	1,030 (100)	29.9
중학교 교육비	있다	438 (37.2)	31.1
	없다	741 (62.8)	32.4
	계	1,179 (100)	31.9
고등학교 교육비	있다	232 (29.1)	38.5
	없다	566 (70.9)	36.3
	계	798 (100)	36.9
대학교 교육비	있다	44 (23.9)	40.0
	없다	140 (76.1)	33.5
	계	184 (100)	35.1

표 8. 보육 · 교육비 향후 예상 비용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출산의향 없는 여성) (단위: 명, %)

구 분	향후 적정비용 절감 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보육비 예상 지출	있다	86 (30.8)	38.4
	없다	193 (69.2)	35.4
	계	279 (100)	36.2
유치원비 예상 지출	있다	86 (30.8)	37.0
	없다	193 (69.2)	31.1
	계	279 (100)	32.7
초등학교 교육비 예상 지출	있다	219 (31.2)	31.2
	없다	484 (68.8)	30.5
	계	703 (100)	28.7
중학교 교육비 예상 지출	있다	266 (26.7)	31.2
	없다	729 (73.3)	32.5
	계	995 (100)	27.8
고등학교 교육비 예상 지출	있다	171 (23.3)	38.0
	없다	562 (76.7)	36.3
	계	733 (100)	25.8
대학교 교육비 예상 지출	있다	39 (22.0)	40.0
	없다	138 (78.0)	33.5
	계	177 (100)	22.9

2. 심층 분석 결과

가.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보육 · 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 가지 모형을 구축하였다. 첫번째 모형은 현재 자녀에 대한 보육 · 교육비 지출이 현재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우선 보육 · 교육비를 지출하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후,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과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녀가 1명 있는 여성과 자녀가 2명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각각 분석한 이유는 1자녀에서 2자녀로, 그리고 2자녀에서 3자녀로의 출산 이행 의사에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 · 교육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 분석해 보기 위함이다. 또한 보육 · 교육 단계별로 보육 · 교육비 지출 정도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보육비를 지출하는 여성, 유치원비를 지출하는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를 지출하는 여성 각각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3].

첫 번째 모형은 현재 보육 · 교육비 지출 수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고 보육 · 교육비 지출 수준

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소득수준, 양육 자녀수, 남아 자녀 유 · 무, 어머니 연령, 어머니 학력, 어머니 취업여부, 거주지역 변수를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동 모형에서 보육 · 교육비 지출 수준은 지난 3개월간 자녀의 보육 혹은 교육을 위해 지출한 월평균 비용(만원)으로서 가구당 지출한 전체 보육 · 교육비용과 자녀 1인당 지출한 비용을 번갈아 사용하였다.

두 번째 모형은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 · 교육비 수준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수준으로 절감될 때 자녀 출산 의향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분석은 전체 여성과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두 번째 모형의 주된 분석 목적은 보육 · 교육비 지출이 감소되면 출산 의향이 어떻게 변화하는 가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보육 · 교육비 지출 수준을 통제하고 지출 감소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현재 보육 · 교육비 지출 비용 변수를 통제변수로서 사용하였다. 또한 첫 번째 모형과 마찬가지로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양육자녀수, 남아자녀유무, 어머니연령, 어머니학력, 어머니취업여부, 거주지역 변수를 통제 변수로서 사용하였다. "보육 · 교육비 지출 감소" 변수는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 · 교육비 지출 수준에서 본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지출 수준으로의 감소 비율이다.

세 번째 모형은 향후에 지출할 보육 · 교육비 수준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절감할 때 자녀 출산 의향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향후 지출할 보육 · 교육비는 현재 자녀의 교육단계에서 2단계 높은 교육단계로까지 보았다. 이러한 분석 역시 전체 여성과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세 번째 모형의 주된 분석 목적은 향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 · 교육비가 감소되는 경우 여성의 출산 의향이 어떻게 변화하는 가 파악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모형과 마찬가지로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양육 자녀수, 남아 자녀 유 · 무, 어머니 연령, 어머니 학력, 어머니 취업여부, 거주지역 변수를 통제 변수로서 사용하였다. "보육 · 교육비 예상 지출 감소" 변수는 2007년 전국 평균 보육 · 교육비 지출 수준에서 본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육 · 교육비 예상 지출 비용으로의 감소 비율이다.

동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의 설명은 아래 표와 같다. 동 모형에서 종속 변수는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1의 값을 가지며,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지는 형태이다. 따라서 비선형모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식을 적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3) 중학교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여성 167명 중에서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은 7명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여성 43명 중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은 3명으로 6.5%에 지나지 않았다. 샘플수와 자녀 출산 의향 변수의 변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교육비 지출과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기로 한다.

표 9. 로짓 모형에 사용한 변수 설명

첫번째 모형	종속변수	현재 자녀 출산 의향	자녀 출산 의향 있음=1, 없음=0
	주요독립변수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	월평균 보육·교육비(만원), 연속 변수
두 번째 모형	종속변수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 시 자녀 출산 의향	자녀 출산 의향 있음=1, 없음=0
	주요독립변수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수준에서 적정 수준으로의 절감 비율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 – 적정 수준)/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100, 연속변수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	월평균 보육·교육비(만원), 연속 변수
세 번째 모형	종속변수	향후 보육·교육비 예상 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자녀 출산 의향 있음=1, 없음=0
	주요독립변수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수준에서 적정수준으로의 절감 비율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 – 적정 수준)/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100, 연속변수
공통 독립변수		소득수준	최저소득층=1 혹은 0 저소득층=1 혹은 0 중산층=1 혹은 0 고소득층=1 혹은 0 최고소득층=1 혹은 0(준거집단)
		양육 자녀수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 수, 연속변수
		남아 자녀 유·무	남아자녀 있음=1, 없음=0
		어머니 연령	응답자 여성의 연령, 연속변수
		어머니 학력	어머니 대졸 이상=1 혹은 0 어머니 고졸 이상=1 혹은 0(준거집단)
		어머니 취업	어머니 취업=1, 어머니 비취업=0
		거주지역	대도시 거주=1 혹은 0 중소도시 거주=1 혹은 0 농촌 거주=1 혹은 0(준거집단)

나.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추정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번째 모형에서 중학교 교육비 지출 모형과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모형, 그리고 세 번째 모형에서 대학교 교육비 지출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이러한 모형들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첫 번째 모형 추정 결과

첫 번째 모형에서 보육 · 교육비 지출은 출산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 교육비를 지출하는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자녀를 1명 가지고 있는 여성, 자녀를 2명 가지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모두 보육 · 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 교육비를 보육비, 초등학교 교육비, 중학교 교육

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도 역시 해당 보육 · 교육비 지출이 자녀 출산 의향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 교육비 지출 변수를 가구당 전체 비용으로 한 경우와 자녀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한 경우 모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 · 교육비 지출 변수 대신 양육 자녀수와 어머니의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인 변수들이 자녀 출산 의향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어머니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 의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최고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출산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육 · 교육비 지출이 자녀 출산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부모가 자녀 출산 여부를 결정할 때 현재 지출하고 있는 교육비용 뿐 만 아니라 미래에 지출할 교육 비용까지도 모두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출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육비용 뿐 만 아니라 결혼 비용 등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지불해야 하는 총비용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상 자녀를 하나 정도는 반드시 낳으려는 경향도 보육 · 교육비 지출이 자녀 출산 의향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끼친 이유라고 판단된다.

자녀가 1명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자녀가 2명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추가적인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은 여성의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인 변수가 유의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자녀 출산에서 2자녀 출산으로의 이행 혹은 2자녀에서 3자녀 출산으로의 이행은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두 번째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은 "자녀는 두 명 있어야 한다," 혹은 "자녀에게 형제 자매가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성으로 하여금 보다 건강한 출산이 가능한 연령인 어린 나이에 출산하고자 하는 의향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초혼 연령의 상승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 의향이 낮다는 사실은 초혼 연령의 상승으로 인하여 기혼 여성의 연령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높은 연령으로 인하여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표 10. 현재 보육 · 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전체 여성

구 분	가구당 지출	자녀 1인당 지출	양육자녀 1명	양육자녀 2명
가구당 보육·교육비 지출	−0.002 (0.003) [0.998]			0.000 (0.004) [1.000]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		−0.003 (0.003) [0.997]	−0.004 (0.004) [0.996]	
최저소득층	−0.340 (0.264) [0.712]	−0.358 (0.263) [0.699]	−0.563 (0.368) [0.569]	−0.029 (0.411) [0.972]

표 10. 계속

구 분	가구당 지출	자녀 1인당 지출	양육자녀 1명	양육자녀 2명
저소득층	−0.226 (0.279) [0.798]	−0.244 (0.279) [0.783]	−0.116 (0.377) [0.891]	−0.318 (0.465) [0.728]
중산층	−0.326 (0.242) [0.722]	−0.342 (0.243) [0.710]	−0.227 (0.338) [0.797]	−0.513 (0.392) [0.598]
고소득층	−0.657* (0.284) [0.518]	−0.671* (0.284) [0.511]	−0.396 (0.368) [0.673]	−1.034† (0.540) [0.356]
양육 자녀수	−1.541*** (0.165) [0.214]	−1.591*** (0.158) [0.204]		
남아 자녀 있음	−0.099 (0.169) [0.905]	−0.095 (0.169) [0.909]	−0.087 (0.219) [0.916]	−0.101 (0.302) [0.904]
어머니 연령	−0.200*** (0.025) [0.818]	−0.199*** (0.025) [0.819]	−0.227*** (0.035) [0.797]	−0.174*** (0.040) [0.840]
어머니 대졸 이상	−0.082 (0.171) [0.922]	−0.085 (0.171) [0.918]	0.248 (0.246) [1.281]	−0.424 (0.265) [0.655]
어머니 취업	−0.116 (0.180) [0.891]	−0.097 (0.181) [0.907]	−0.278 (0.250) [0.757]	−0.061 (0.291) [1.063]
대도시	−0.136 (0.320) [0.873]	−0.132 (0.321) [0.877]	−0.182 (0.436) [0.834]	0.598 (0.654) [1.819]
중소도시	0.009 (0.316) [1.009]	0.006 (0.317) [1.006]	−0.291 (0.438) [0.748]	0.888 (0.639) [2.430]
−2 Log L	1,031.264	1,030.631	494.664	451.728
Model chi-square	299.752***	300.385***	70.406***	41.138***
df	12	12	11	11
N	1,349	1,349	412	798

주: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 )안은 standard error, [ ]안은 odds ratio임.
†p<0.1, *p<0.05, **<0.01, ***<0.001

표 11. 현재 보육 · 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보육비, 유치원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구 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가구당 보육비 지출	0.004 (0.005) [1.004]					
자녀 1인당 보육비 지출		0.002 (0.005) [1.002]				
가구당 유치원비 지출			−0.004 (0.007) [0.996]			
자녀 1인당 유치원 비 지출				−0.005 (0.009) [0.995]		
가구당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0.007 (0.006) [0.993]	
자녀 1인당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0.006 (0.008) [0.994]
최저소득층	−0.243 (0.487) [0.784]	−0.299 (0.484) [0.741]	−1.576** (0.551) [0.207]	−1.577** (0.550) [0.207]	0.247 (0.466) [1.280]	0.296 (0.470) [1.344]
저소득층	−0.439 (0.506) [0.645]	−0.481 (0.502) [0.618]	−1.042† (0.605) [0.353]	−1.047† (0.606) [0.351]	−0.164 (0.540) [0.849]	−0.135 (0.543) [0.874]
중산층	−0.294 (0.432) [0.745]	−0.341 (0.432) [0.711]	−1.222** (0.461) [0.295]	−1.227** (0.462) [0.293]	−0.249 (0.438) [0.779]	−0.229 (0.439) [0.795]
고소득층	−0.349 (0.475) [0.706]	−0.374 (0.475) [0.688]	−2.563** (0.841) [0.077]	−2.558** (0.840) [0.077]	−0.797 (0.565) [0.451]	−0.784 (0.564) [0.456]
양육 자녀수	−1.884*** (0.297) [0.152]	−1.872*** (0.301) [0.154]	−1.378*** (0.342) [0.252]	−1.403*** (0.343) [0.246]	−0.850** (0.278) [0.427]	−0.904** (0.286) [0.405]
남아 자녀 있음	−0.127 (0.302) [0.881]	−0.129 (0.302) [0.879]	0.035 (0.373) [1.035]	0.045 (0.373) [1.046]	−0.357 (0.322) [0.700]	−0.357 (0.321) [0.700]
어머니 연령	−0.163** (0.048) [0.850]	−0.166** (0.048) [0.847]	−0.198** (0.059) [0.820]	−0.195** (0.059) [0.823]	−0.200*** (0.054) [0.819]	−0.203*** (0.054) [0.816]
어머니 대졸 이상	0.010 (0.328) [1.010]	0.011 (0.328) [1.012]	−1.051** (0.369) [0.350]	−1.048** (0.369) [0.351]	−0.010 (0.311) [0.990]	−0.002 (0.312) [0.998]

표 11. 계속

구 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어머니 취업	−0.383 (0.317) [0.682]	−0.346 (0.315) [0.708]	0.107 (0.376) [1.113]	0.103 (0.376) [1.109]	0.110 (0.305) [1.116]	0.094 (0.305) [1.099]
대도시	0.727 (0.646) [2.070]	0.748 (0.644) [2.112]	−0.776 (0.678) [0.460]	−0.774 (0.678) [0.461]	−0.508 (0.564) [0.602]	−0.522 (0.565) [0.593]
중소도시	0.862 (0.641) [2.368]	0.862 (0.639) [2.369]	−0.433 (0.657) [0.648]	−0.434 (0.657) [0.648]	−0.092 (0.537) [0.912]	−0.096 (0.538) [0.908]
−2 Log L	336.368	336.991	242.907	242.873	357.955	358.595
Model chi-square	102.188***	101.564***	59.293***	59.326***	43.732***	42.750***
df	12	12	12	12	12	12
N	388	388	376	376	710	708

주: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 )안은 standard error, [ ]안은 odds ratio임.
†p<0.1, *p<0.05, **<0.01, ***<0.001

2) 두 번째 모형 추정 결과

두 번째 모형 추정 결과, 보육비, 초등학교 교육비, 고등학교 교육비 절감은 여성들의 출산 의향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에서 보육비, 초등학교 교육비, 고등학교 교육비 절감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녀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승산비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는바, 보육 · 교육비 절감의 효과는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보육 · 교육비 절감이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를 출산할 것으로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다. 특히 이러한 보육 · 교육비 절감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더 큰 유효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현재 보육 · 교육비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전체 여성)

구 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보육비 지출 감소	0.012** (0.005) [1.012]				
가구당 보육비 지출	0.009 (0.006) [1.009]				
유치원비 지출 감소		0.002 (0.005) [1.002]			
가구당 유치원비 지출		−0.005 (0.006) [0.995]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감소			0.011** (0.004) [1.011]		
가구당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0.012** (0.004) [0.988]		
중학교 교육비 지출 감소				0.002 (0.010) [1.002]	
가구당 중학교 교육비 지출				0.016† (0.008) [1.016]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감소					0.059† (0.032) [1.061]
가구당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0.010 (0.028) [1.010]
최저소득층	0.158 (0.484) [1.171]	−0.880 (0.421) [0.415]	0.181** (0.338) [1.198]	1.370 (0.851) [3.936]	−1.391 (2.023) [0.249]
저소득층	0.532 (0.498) [1.702]	−0.527 (0.471) [0.591]	−0.210 (0.375) [0.811]	0.229 (1.097) [1.258]	−1.799 (2.262) [0.165]
중산층	0.389 (0.429) [1.476]	−0.485 (0.357) [0.616]	−0.151 (0.290) [0.860]	1.112 (0.801) [3.040]	0.940 (1.853) [2.560]
고소득층	0.231 (0.465) [1.260]	−1.253† (0.463) [0.286]	−0.395** (0.339) [0.674]	0.395 (0.812) [1.484]	0.251 (1.771) [1.285]

표 12. 계속

구 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양육 자녀수	−1.668*** (0.279) [0.189]	−1.246*** (0.267) [0.288]	−0.689*** (0.189) [0.502]	−0.388 (0.375) [0.678]	−2.124 (1.308) [0.119]
남아 자녀 있음	0.149 (0.300) [1.161]	−0.353 (0.279) [0.702]	−0.302 (0.237) [0.739]	0.719 (0.684) [2.053]	−0.701 (2.053) [0.496]
어머니 연령	−0.110* (0.043) [0.895]	−0.086 (0.044) [0.917]	−0.158* (0.039) [0.854]	0.099 (0.167) [1.104]	−0.026 (0.713) [0.975]
어머니 대졸 이상	−0.437 (0.297) [0.646]	−0.526 (0.272) [0.591]	−0.193† (0.210) [0.824]	−0.341 (0.540) [0.711]	−1.194 (1.723) [0.303]
어머니 취업	0.325 (0.282) [1.384]	0.200 (0.288) [1.222]	−0.100 (0.206) [0.904]	−0.390 (0.459) [0.677]	2.450 (1.923) [11.592]
대도시	0.334 (0.533) [1.397]	0.229 (0.566) [1.257]	0.199 (0.408) [1.221]	−0.036 (0.487) [0.964]	−0.858 (1.278) [0.424]
중소도시	0.538 (0.519) [1.712]	0.286 (0.562) [1.331]	0.093 (0.400) [1.097]		
−2 Log L	361.769	387.766	639.704	138.624	28.755
Model chi-square	86.946***	55.069***	71.892***	13.295	16.799
df	13	13	13	12	12
N	324	343	606	148	41

주: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 )안은 standard error, [ ]안은 odds ratio임.
†p<0.1, *p<0.05, **<0.01, ***<0.001

표 13. 현재 보육 · 교육비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자녀 출산 의향 없는 여성)

구 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보육비 지출 감소	0.018** (0.006) [1.018]				
가구당 보육비 지출	0.011 (0.007) [1.011]				
유치원비 지출 감소		0.002 (0.006) [1.002]			

표 13. 계속

구 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가구당 유치원비 지출		−0.008 (0.007) [0.992]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감소			0.013** (0.005) [1.013]		
가구당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0.012** (0.005) [0.988]		
중학교 교육비 지출 감소				0.003 (0.010) [1.003]	
가구당 중학교 교육비 지출				0.013 (0.009) [1.013]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감소					0.161† (0.088) [1.175]
가구당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0.036 (0.050) [1.037]
최저소득층	0.499 (0.624) [1.647]	−0.604 (0.500) [0.546]	0.115 (0.393) [1.122]	0.698 (0.901) [2.010]	−6.183 (4.221) [0.002]
저소득층	0.987 (0.636) [2.684]	−0.400 (0.566) [0.670]	−0.313 (0.445) [0.731]	−0.161 (1.122) [0.851]	−5.890 (4.442) [0.003]
중산층	0.917 (0.562) [2.503]	−0.299 (0.430) [0.741]	−0.029 (0.333) [0.972]	0.558 (0.852) [1.748]	−2.072 (3.003) [0.126]
고소득층	0.749 (0.607) [2.114]	−0.724 (0.509) [0.485]	−0.210 (0.379) [0.810]	0.265 (0.822) [1.303]	−0.959 (2.856) [0.383]
양육 자녀수	−0.964** (0.003) [0.381]	−1.413*** (0.341) [0.243]	−0.614** (0.214) [0.541]	−0.505 (0.409) [0.604]	−4.230† (2.451) [0.015]
남아 자녀 있음	0.328 (0.369) [1.388]	−0.161 (0.330) [0.851]	−0.157 (0.276) [0.855]	0.497 (0.696) [1.643]	−5.935 (4.201) [0.003]
어머니 연령	−0.030 (0.052) [0.970]	−0.061 (0.051) [0.941]	−0.138** (0.046) [0.872]	0.046 (0.175) [1.047]	−0.746 (0.974) [0.474]

표 13. 계속

구 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어머니 대졸 이상	−0.310 (0.336) [0.733]	−0.360 (0.315) [0.697]	−0.238† (0.238) [0.788]	−0.631 (0.607) [0.532]	−3.141 (3.719) [0.043]
어머니 취업	0.496 (0.324) [1.641]	0.303 (0.331) [1.361]	−0.137 (0.236) [0.872]	−0.737 (0.514) [0.479]	8.893† (4.853) [7283.251]
대도시	−0.025 (0.598) [0.975]	0.652 (0.707) [1.919]	0.533 (0.500) [1.704]	−0.039 (0.523) [0.961]	−2.535 (2.493) [0.079]
중소도시	0.280 (0.580) [1.323]	0.581 (0.708) [1.788]	0.237 (0.495) [1.267]		
−2 Log L	263.187	301.064	512.280	123.416	19.060
Model chi-square	34.934**	32.844**	46.838***	11.379	22.544*
df	13	13	13	12	12
N	240	294	551	141	38

주: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 )안은 standard error, [ ]안은 odds ratio임.
†p<0.1, *p<0.05, **<0.01, ***<0.001

3) 세번째 모형 추정 결과

향후 보육 · 교육비 지출 절감에 따른 자녀 출산 의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여성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출할 보육비와 유치원비의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단계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비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출할 비용의 절감이 자녀를 출산 하도록 의향을 변경시키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에 지출할 보육 · 교육비의 절감이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의향을 바꿀 만큼 강력한 효과를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드는 향후 보육료나 유치원비 지출에 대한 절감은 자녀 출산 의향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되나, 이 보다 높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단계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비용의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분석 모형에서 독립 변수인 예상지출감소는 전국 평균 비용으로부터 본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지출 비용으로의 절감이다.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단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실제적으로 지출할 비용이 전국의 평균 비용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전국 평균 비용으로부터의 절감은 여성 본인에게 현실적으로 크게 느

껴지지 않는 절감 수준일 수 있다. 이렇게 현실감이 부족한 비용의 절감은 자녀를 출산 하도록 의향을 갖도록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 · 교육비 절감이 보다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수준으로의 비용 절감이어야 여성들이 출산 의향을 갖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표 14. 향후 보육 · 교육비 예상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전체 여성)

구 분	향후 보육비 지출 여성	향후 유치원비 지출 여성	향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대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보육비 예상 지출 감소	0.008* (0.004) [1.008]					
유치원비 예상 지출 감소		0.008* (0.004) [1.008]				
초등학교 교육비 예상 지출 감소			0.001 (0.003) [1.001]			
중학교 교육비 예상 지출 감소				−0.000 (0.002) [1.000]		
고등학교 교육비 예상 지출 감소					0.003 (0.003) [1.003]	
대학교 교육비 예상 지출 감소						0.015† (0.009) [1.015]
최저소득층	0.113 (0.389) [1.120]	0.068 (0.392) [1.070]	−0.049 (0.251) [0.953]	−0.067 (0.228) [0.935]	−0.063 (0.278) [0.939]	0.116 (0.655) [1.124]
저소득층	−0.267 (0.419) [0.765]	−0.307 (0.420) [0.736]	−0.222 (0.267) [0.801]	−0.174 (0.245) [0.841]	−0.125 (0.309) [0.882]	−0.339 (0.785) [0.712]
중산층	−0.055 (0.384) [0.946]	−0.077 (0.386) [0.926]	−0.307 (0.229) [0.736]	−0.305 (0.201) [0.737]	−0.307 (0.246) [0.736]	−0.002 (0.594) [0.998]
고소득층	−0.336 (0.423) [0.714]	−0.344 (0.422) [0.709]	−0.305 (0.258) [0.737]	−0.392† (0.230) [0.676]	−0.426 (0.282) [0.653]	0.294 (0.606) [1.342]
양육 자녀수	−1.408*** (0.187) [0.245]	−1.410*** (0.188) [0.244]	−1.252*** (0.129) [0.286]	−0.982*** (0.129) [0.375]	−0.570*** (0.156) [0.565]	−0.505† (0.300) [0.604]

표 14. 계속

구 분	향후 보육비 지출 여성	향후 유치원비 지출 여성	향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대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남아 자녀 있음	−0.415 (0.254) [0.660]	−0.372 (0.255) [0.689]	−0.262 (0.165) [0.770]	−0.278† (0.155) [0.758]	−0.331† (0.201) [0.718]	0.730 (0.555) [2.075]
어머니 연령	−0.033 (0.038) [0.967]	−0.032 (0.038) [0.968]	−0.081** (0.024) [0.922]	−0.136*** (0.022) [0.873]	−0.138*** (0.033) [0.871]	0.072 (0.148) [1.075]
어머니 대졸 이상	−0.234 (0.260) [0.791]	−0.296 (0.260) [0.744]	−0.274† (0.165) [0.760]	−0.184 (0.145) [0.832]	−0.240 (0.181) [0.787]	−0.415 (0.449) [0.660]
어머니 취업	−0.213 (0.332) [0.808]	−0.243 (0.333) [0.784]	0.111 (0.167) [1.118]	0.082 (0.145) [1.085]	−0.113 (0.176) [0.893]	−0.548 (0.405) [0.578]
대도시	−0.070 (0.477) [0.933]	0.004 (0.480) [1.004]	0.067 (0.307) [1.069]	0.249 (0.286) [1.283]	0.475 (0.378) [1.609]	1.109 (1.116) [3.031]
중소도시	0.079 (0.475) [1.082]	0.162† (0.478) [1.176]	0.164 (0.304) [1.178]	0.293 (0.283) [1.341]	0.451 (0.373) [1.570]	1.497 (1.096) [4.470]
−2 Log L	478.354	478.043	1,115.055	1,305.918	852.083	177.313
Model chi−square	144.784***	145.095***	247.883***	162.684***	54.886***	14.460
df	12	12	12	12	12	12
N	456	456	984	1,107	749	173

주: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 )안은 standard error, [ ]안은 odds ratio임.
†p<0.1, * p<0.05, ** p<0.01, *** p<0.001

표 15. 향후 보육 · 교육비 예상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자녀 출산 의향 없는 여성)

구 분	향후 보육비 지출 여성	향후 유치원비 지출 여성	향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대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보육비 예상 지출 감소	0.004 (0.005) [1.004]					
유치원비 예상 지출 감소		0.007 (0.005) [1.007]				
초등학교 교육비 예상 지출 감소			0.001 (0.003) [1.001]			

표 15. 계속

구 분	향후 보육비 지출 여성	향후 유치원비 지출 여성	향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대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중학교 교육비 예상 지출 감소				−0.001 (0.003) [0.999]		
고등학교 교육비 예상 지출 감소					0.003 (0.004) [1.003]	
대학교 교육비 예상 지출 감소						0.016† (0.009) [1.016]
최저소득층	0.054 (0.459) [1.056]	−0.045 (0.463) [0.956]	0.132 (0.292) [1.141]	−0.040 (0.259) [0.960]	−0.215 (0.310) [0.806]	−0.413 (0.701) [0.662]
저소득층	−0.567 (0.524) [0.567]	−0.668 (0.529) [0.513]	−0.176 (0.322) [0.838]	−0.209 (0.283) [0.812]	−0.152 (0.337) [0.859]	−0.581 (0.798) [0.559]
중산층	−0.173 (0.453) [0.842]	−0.248 (0.456) [0.781]	−0.204 (0.272) [0.815]	−0.250 (0.231) [0.779]	−0.338 (0.270) [0.713]	−0.473 (0.634) [0.623]
고소득층	−0.647 (0.545) [0.524]	−0.832 (0.564) [0.435]	−0.197 (0.310) [0.821]	−0.234 (0.259) [0.792]	−0.331 (0.301) [0.719]	0.221 (0.614) [1.247]
양육 자녀수	−0.534* (0.289) [0.586]	−0.536* (0.240) [0.282]	−0.680*** (0.154) [0.507]	−0.685*** (0.146) [0.504]	−0.448* (0.169) [0.639]	−0.561† (0.317) [0.571]
남아 자녀 있음	−0.359 (0.316) [0.698]	−0.283 (0.321) [0.754]	−0.228 (0.197) [0.796]	−0.249 (0.178) [0.779]	−0.235 (0.223) [0.790]	0.529 (0.567) [1.698]
어머니 연령	−0.009 (0.045) [0.991]	−0.007 (0.046) [0.993]	−0.034 (0.028) [0.966]	−0.100*** (0.025) [0.904]	−0.118* (0.037) [0.888]	0.030 (0.154) [1.031]
어머니 대졸 이상	0.051 (0.320) [1.052]	−0.030 (0.322) [1.030]	−0.149 (0.194) [0.861]	−0.214 (0.164) [0.808]	−0.311 (0.198) [0.732]	−0.657 (0.495) [0.519]
어머니 취업	−0.432 (0.428) [0.649]	−0.541 (0.436) [0.582]	0.107 (0.195) [1.113]	0.076 (0.164) [1.079]	−0.107 (0.194) [0.899]	−0.839† (0.442) [0.432]
대도시	0.942 (0.812) [2.566]	1.028 (0.821) [2.795]	0.311 (0.383) [1.365]	0.474 (0.345) [1.606]	0.890† (0.470) [2.435]	0.862 (1.123) [2.369]

표 15. 계속

구 분	향후 보육비 지출 여성	향후 유치원비 지출 여성	향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대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중소도시	1.348† (0.807) [3.849]	1.464† (0.814) [4.324]	0.505 (0.379) [1.658]	0.497 (0.342) [1.644]	0.749 (0.466) [2.115]	1.293 (1.104) [3.644]
−2 Log L	313.202	309.024	796.264	1,034.790	727.109	160.299
Model chi-square	19.983†	21.795*	42.382***	59.027***	31.995*	15.841
df	12	12	12	12	12	12
N	270	269	671	932	690	166

주: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 )안은 standard error, [ ]안은 odds ratio임.
†p<0.1, * p<0.05, ** p<0.01, *** p<0.001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보육 · 교육비 지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소득층의 경우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 지출로 인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높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더욱이 소득이 낮은 계층은 거의 대부분이 전국 평균 수준의 보육 · 교육비 수준에 대해서도 비용 지출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어 보육 · 교육비 부담에 대한 계층간 차별성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이러한 각 가정의 보육 · 교육비 지출이 어느 정도 절감될 경우 여성들의 자녀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보육 · 교육비 지출 절감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더욱 유효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보육 · 교육비 절감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본 연구 결과, 현재의 보육 · 교육비 지출이 출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부모들은 자녀 출산을 결정할 때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 · 교육비 만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에 지출할 교육비까지 고려한다. 또한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소요되는 총 비용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에 지출하고 있는 보육 · 교육비 만을 가지고서는 여성들의 자녀 출산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원인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

게 박혀 있는 "자녀를 반드시 하나쯤은 낳아야 한다"는 사고도 자녀 보육 · 교육비용이 출산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갖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 · 교육비 수준과 그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녀를 낳으려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녀 출산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개별 가정으로 하여금 경제적인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자녀를 낳되 한 명만 낳게 되는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 · 교육비 절감이 유효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육 · 교육비 절감이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육 ·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실례로 전국 평균 비용 수준에서의 보육 · 교육비 절감은 출산 의향에 그다지 큰 영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상당수의 부모들이 전국 평균 비용보다 높은 수준의 보육 ·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 전국 평균 비용에서의 절감은 많은 부모들에게 크게 피부로 와 닿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부모들이 느끼고 있는 보육 · 교육비 지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출산 의향에 유효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보육료 절감의 효과는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 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계층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비 지원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 바, 출산력 회복을 위한 차원에서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 정책이 더욱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보육 · 교육비 절감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자녀 연령이 어리거나 혹은 여성의 연령이 낮은 계층에서 더 클 것으로 나타나 가임기 초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육 · 교육비 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윤정은 미국 코넬대학에서 소비자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부연구위원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저출산정책, 양육지원정책이며, 현재 "양육수당지원방안마련",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yjshin@kihasa.re.kr).

참 고 문 헌

김영주(2005). 대도시 저출산 가정의 주거현황과 주거의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박미희, 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pp.189-206.

손승영(2005)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17(2), pp.285-316.

신윤정, 성태윤, 최은영(200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 · 교육비 부담 정도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외(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사고령사회위원회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복, 이소희(2004).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9(2), pp.95-113.

이정우(1995). **교육과 소득분배**, 서울 비봉출판사.

장혜경, 이미정, 김경미, 김영란(2004).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 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pp.240-15.

정영숙(1996).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1), pp.1-13.

차경욱(2005). 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Becker, G.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Demographic and econom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Universities-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onference Series 11 (NBER, Princeton, NJ), pp.209-231.

Lang, K., & David, K. (1986). Human capital vs. sorting. The effect of compulsory attendance law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1(August), pp.609-624.

Layard, R., & Psacharopoulos, G. (1974). The screening hypothesis and the returns to educ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5), pp.958-998.

Liu, Pal-Wai, & Wong, Yue-chim. (1982). Educational screening by certificates : *An empirical test, Economic Inquirty*, 20(January), pp.72-83.

Riley, J. G. (1979). Testing the educational screeing hypothe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5-2), pp.S227-252.

Schultz, T. W. (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1*(1), pp.1-17.

Stiglitz, J. (1975). The theory of screening educ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ew, 65*(3), pp.283-300.

Weiss, A. (1995). Human capital vs. signaling explanations of wages. *Journal of Economics Perspectives, 9*(4), pp.133-154.

Wolpin, K. I. (1977). Education and screeing. *American Economic Review, 67*(5), pp.949-958.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Burden of Childcare and Education on Childbirth

Yoon-Jeong, Shi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mong the factors causing low fertility the burden of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is the most important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how heavy the burden is and if the burden have any effects on childbirth decisions. This study uses data from a telephone survey conducted between March 17, 2008 and March 28, 2008 over 1,500 married women aged 25~39. Descriptive analysis shows that almost 70~80% of women report they are burdened by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If the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were reduced 44% of those paying childcare cost and 32.7% of those paying kindergarten cost said that they would have another baby. If they paid less they want the cost to be reduced by almost 50% of what they actually pay. This study uses logistic regression models to analyze childbirth decisions under reduce cost. The results show that the reduction of childcare cost, elementary school cost, and high school cos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childbirth decisions. The coefficient is great for the women who do not want to have a baby than for those who want to have a baby. This indicates that the reduction of the cost maybe effective for women to have a baby, particularly for the women who do not want to have a baby. The reduction of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would be effective policy method to solve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in Korea.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relieve the burden of the cost.

KEY WORDS Low Fertility, Childcare Cost, Education Cost, Childbirth Decision